

나주시내버스 수요자 중심 노선 개편한다

13일까지 온라인으로 5개 분야 시민 의견 접수 노선 효율화·마을택시 확대·급행버스 도입 추진

민선 8기 '시내버스 노선 대전환'을 표방한 나주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최우선한 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나주시는 5일 "오는 13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민선 8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제안은 버스노선 신설·변경, 운행시간 조정, 버스 승강장 설치·위치 변경, 대중교통 정보 제공, 기타 불편

사항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접수한다.

제안 방법은 시 누리집 첫 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참여민원-시민참여-시민 의견수렴' 순으로 접속해 실명인증을 거쳐 글을 게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분야별 검토·분석을 통해 노선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 향상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착수했

다.

그동안 비효율적 버스 노선 운영에 따른 운수회사 손실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와 불친절, 난폭운전, 승강장 미정차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선 개편안은 큰 틀에서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 교통 수요를 반영한 노선 효율화, 마을택시 확대, 간선(광주) 노선 정비, 급행버스 도입 등으로 이뤄졌다.

버스 공차율이 높은 벽·오지 마을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교통 수요를 반영해 나주·영산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만 횡수를 늘려 운행하는 방식이다.

대신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 노

선에는 순환형 소형 마을버스를 도입해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구축한다. 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벽·오지 마을은 대체 교통수단인 마을 택시를 확대·보급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혁신도시, 나주역, 원도심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에는 직선형 운행 시스템인 급행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해 민선 8기 노선 개편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나주시 대중교통혁신시민위원회와 더불어 시민이 주도하는 노선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정환기자



목포시, 2022 SRT 어워드 대상 수상

관광객·전문가 평가 거쳐 오감 만족 최고 여행지 인정

목포시는 5일 "SRT매거진이 주관하는 '2022 SRT 어워드' 선정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2022 SRT 어워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 '2022년 최고의 여행지'를 주제로 독자 1만93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심사는 여행작가, 여행 기자 등 전문가와 에디터 평점,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목포시는 개항 125년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해상W쇼와 같은 풍성한 콘텐츠, 목포 9미(味) 등 오감 만족의 최

고 여행지로 인정받았다.

장일례 관광과 미디어마케팅팀장은 "이번 대상은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여행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며 "다양한 여행 상품과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SRT매거진은 목포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로 목포근대역사관 1관을, 인스타그램 사진명소로는 시화골목을 각각 선정했다. 영화 '1987', 드라마 '호텔델루나' 등 각종 미디어 매체의 인기 촬영지인 근대역사관1관과 시화골목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함평군,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 함평군은 최근 이상의 군수와 공직자,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평천지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에서는 팸플릿, 피켓 등을 활용해 ▲빨랫감 모아서 하기 ▲설거지를 받아쓰기 ▲샤워 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20% 물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했다.

영광군, 내년 본예산 6천556억 편성

민생경제 회복·신산업 육성 등 긍정 방향 제시

영광군이 2023년 본예산 6천556억 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내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5천913억 원, 특별회계 64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은 농업·지역경제 분야로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 농

식품 가공산업 육성,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책,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계획 수립,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조성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군은 군민 재난극복 행복지원금 520억 원 지급,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입증된 축제, 중앙부처·국회 방문

을 통한 192억6천만원 사업비 확보, 2021년산 구곡 전량 매입, 작은 영화관 확대 및 24시간 콜택시 운영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복지·문화관광·스포츠 분야로 ▲부모급여 확대 ▲교육재단 설립 ▲시니어 클럽 설치 ▲문화예술촌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환경·행정 분야의 경우 ▲사전 예방체계 강화 ▲주택·산책로 달빛 안심거리 시범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군민배심원단 운영 ▲GREAT 영광 혁신 주니어보드 ▲고향사랑기부제 등 사업을 추진한다.

강종만 군수는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기치 아래 영광 대전환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군민들의 희망을 담은 우리와 공존의 가치가 군정에 녹아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신안소방서, 낙상사고 방지 서비스 제공

신안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5일 "최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낙상사고 방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온이 하락하면서 몸의 근육은 쉽게 굳으며 움직임은 둔해지는데 빈번한 자택 내 낙상사고는 특히 어르신에게 큰 부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기타 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다양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연호 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전순찰대를 적극 이용해 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집

8일까지 郡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해남군은 5일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 일자리를 수행할 수행기관도 같은 기간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형 일자리와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복지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사업 참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 유형 및 직무 내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도=박세권기자

복지시설·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 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으로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8일까지 군 복지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와 군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서류 전형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능력 등 유사 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종합 심사 후 선정한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군,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대행

진도군은 5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남도에서 지정한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

득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출구 금지 대상이나 고액 상속채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도=박세권기자

토지매매 (담양)

▶ 담양 프로방스 앞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 ④ 장성읍 아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 ⑤ 장성읍 아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부)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원동 (윤슬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정)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 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